

‘양정우지대’ 군기 천안문광장에 등장

동북항일련군의 영웅적 기개 향전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서 빛나다



9월 3일 오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가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80쪽의 항전영웅부대 명예의 기발로 구성된 군기대렬(战旗方队)이 역사적 영광을 안고 조국과 인민의 사명을 받았다. 배경음악 〈강철홍류행진곡〉(钢铁洪流进行曲)에 맞춰 ‘양정우지대’의 군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생방송 화면을 가득 채웠다. 눈썰미 빠른 통화의 네티즌들은 10여초나 되는 생방송 영상 화면 속에서 “보았어요. 기발에 ‘통화지대수여’라고 씌여있어요.”라며 신속히 댓글을 남겼다.

사람들의 가슴을 들끓게 한 이 장면은 양정우 장군의 손자 마계지(马继志)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와 희생된 동북항일련군 전사들이 눈보라 속에서 간고하게 싸우면서 바라던 녀름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의 영혼도 분명 위안

을 느낄 것입니다.”
륙군 제 83 집단군 모 려단의 전신은 양정우가 이끌었던 동북인민혁명군 제 1군 독립사단이다. 항전 기간 양정우가 이끌었던 이 독립사단은 장백산지역을 누비며 남만항일군거지를 발전 장대시키고 일제, 괴뢰군과 천여차례의 간고하면서도 비장한 전투를 벌였으며 ‘동북을 통치하고 중원으로 진군’하려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을 좌절시키면서 동북 항전의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정우 장군은 혹독한 눈보라 속에 탄약과 식량이 모두 떨어진 상황에서도 홀로 수백명의 일제, 괴뢰군과 처



렬하게 싸웠다. 식량 공급이 끊긴 5일간 그는 풀뿌리와 나무껍질, 송문태기를 먹으며 마지막 목숨이 다할 때까지 혈전을 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제 4야전군은 제 83 집단군 모 려단을 ‘양정우지대’로

개편했다. 려단 전사들은 동북항일련군의 혈맥을 이어받아 시종 돌격 자세를 유지하면서 선후로 장강홍수방지, 문천지진 재해복구, 해외 평화유지 등 임무에 참가했다. 양정우 장군이 직접 작사한 〈동북항일련군 제 1로군 군가〉는 부대에서 매번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면 높이 부르는 노래이다.

인민과 나라는 영원히 그들의 공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력사를 명기하고 선렬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 김립일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조선족 항일영웅 리홍광



리홍광은 항일전쟁 시기 동북지역에서 활약한 동북항일련군의 주요 창시자이자 뛰어난 군사지휘관이다. 그는 1910년 조선 경기도 풍천군의 한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불굴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으며 일본인 교사의 체벌과 경찰의 억압에 맞서다 퇴학당한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항일구국의 신념이 더욱 확고히 자리잡게 했다.

1925년 가족과 함께 중국 길림성 반석현으로 이주한 그는 1927년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청년동맹과 농민동맹에 가입하며 조직적인 혁명활동을 시작했다. 1930년 3월, 그는 반석지역 최초의 농민혁명 무장조직인 반석농민적위대를 직접 조직하고 창설했다. 같은 해 9월, 공산국제기구의 ‘일국일당(一國一黨)’ 원칙에 따라 중국내 조선공산당조직이 해체되자 리홍광은 이통현 산도구에서 정식으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9.18사변’ 이후, 리홍광은 항일 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1932년, 그가 이끌던 적위대는 리송파의 특무대와 합병하여 반석유격대(후에 중국공농군 제 32군 남만유

격대로 개편)를 편성했다.
일본군의 빈번한 ‘토벌’의 극한 환경 속에서 그는 양정우를 도와 부대를 정돈하고 유격전을 전개했다. 1933년 1월부터 4월까지 양정우와 함께 유리하도(玻璃河套) 반‘토벌’ 전투를 지휘하며 네차례의 대규모 일본군 공세를 분쇄했다. 특히 룡도강전투에서는 일본군 수비대로 위장하는 기발한 계책을 사용하여 괴뢰군 영부를 습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1933년 9월 18일, 동북인민혁명군 제 1군 독립사가 설립되자 양정우가 사장(师长) 겸 정위를 맡고 리홍광이 참모장을 력입했다. 그는 양정우를 도와 부대를 이끌고 휘방강 남쪽으로 건너가 룡강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격구를 개척했다. 통화, 류타 일대 작전에서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지혜로운 삼원포 습격, 용맹스러운 량수하 공격 등 유명한 전투를 지휘했다.

1934년 2월, 리홍광은 남만항일군연합총지휘부 설립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모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여러 항일무장 세력의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민중과 깊이 소통하여 그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동지들에게 확고한 안정감을 주었다. 리홍광은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늘 부하 병사들과 민중들을 먼저 배려했으며 자신에게는 엄격한 생활을 요구했다. 추운 겨울에도 낡은 모피 코트 한벌로 겨울을 넘기고 더운 여름에도 해어진 바람막이 한장으로 버티고 난고 역경을 묵묵히 견뎠다.

당시 부대 병력의 약 3분의 1이 조선족 병사들이었고 많은 병사들이 지방 항일무장 세력에서 개편되어 합류한 상황이었다. 이에 리홍광은 강력한 지도부 수립과 전군의 단결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내부 단결과 통합의 중

요성에 큰 무게를 두고 이 작업을 자신의 핵심 임무중 하나로 삼아 내부 단결을 철저히 추진해나갔다.

1934년 12월, 일본제국주의가 ‘방화, 살륙, 강탈(烧光、杀光、抢光)’이라는 ‘삼광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부대의 식량 공급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장병들은 두주 동안이나 굶주림에 시달리며 나무껍질과 버섯으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야 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지휘관 리홍광마저 병석에 눕게 되자 병사들은 깊은 우려에 빠졌다. 이때 압록강변 정찰을 나갔던 전련장이 20여근의 쌀을 가지고 부대에 돌아왔다. 취사병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얼른 밥 한그릇을 지어 리홍광에게 가져다주었다. 리홍광은 “이 밥을 소년영(少年营)의 병사들에게 보내주시오. 그들은 어리고 병들어 더 견디기 어렵게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취사병이 밥을 소년영에 가져갔지만 소년영의 부상병들은 대표를 보내 밥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 광경을 본 리홍광은 밤에 버섯을 넣어 모두가 나누어 마실 수 있도록 죽을 끓이기로 결정했다.

1934년 11월, 동북인민혁명군 제 1군이 정식으로 창설되자 리홍광은 제 1사 사장 겸 정위가 되어 통화, 릉강, 류타, 흥경 등지에서 광범위한 유격전을 펼쳤다. 1935년 2월, 리홍광은 부대를 이끌고 조선 국경내

동흥진 일본군 거점을 기습 공격하여 수십명의 일본군을 섬멸하고 다량의 군수물자를 로획했다. 이번 전투에서 12명의 일본군 사병이 생포되었다. 리홍광은 한 녀성동지를 보내 그들을 심문하게 했다. 일본군은 화력 우세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되었다는 사실에 락담했으며 리홍광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했다. 이윽고 명성이 자자한 리홍광이 용맹스러운 ‘녀장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일본군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 그때로부터 일본군 사이에서는 리홍광이 ‘녀장군’이라는 신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935년 5월, 리홍광은 부대를 이끌고 환인으로 이동하던 중 일본군에 포위당해 치열한 격전중에서 가슴에 총탄을 맞았다. 5월 12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리홍광은 부하들에게 “혁명은 언제나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것이며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25세 밖에 안되었다.

불과 5년간의 혁명생활 동안 리홍광은 평범한 농민에서 뛰어난 군사지휘관으로 성장했으며 동북항일투쟁에 마멸할 수 없는 기여를 하였다. 그의 혁명정신과 군사 지휘 재능은 후세에 영원히 귀감이 되고 기억될 것이다.

/ 종합



홍일촌에 가면 〈십진가〉가 들린다



연길에서 100여키로미터 떨어진 왕청현 대흥구진 홍일촌은 1930년대 초, 중공왕청현위와 하마탕구위의 소재지로서 김상화, 김은식, 김백문 등 혁명영렬들이 용솟음쳐 나온 곳이다.

홍일촌은 홍색관광을 특색으로 하는 행정촌으로 2020년 6월에 길림성성급향촌관광중점촌에 입선되었으며 그해 7월에는 전국향촌관광중점촌과 전국 60개 홍색관광 발전 전형 사례 명단에 들었다. 2020년에 접대한 관광객이 연 3.2만명에 달하면서 인기가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 길림성홍색관광시범촌으로, 2021년에는 국가 ‘당장건 백주년 홍색관광 백갈래 정품 코스’로, 2024년에는 이촌에서 건설한 홍일촌당성교양기지가 국가급 홍색관광 정품 코스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에 건설한 당성교양기지는 부지면적이 12.3무인데 500여쪽의 력사사진과 동상, 조각물로 근거지의 건설사와 영웅인물형상을 부각시킨 ‘당성교양관’, 200여건의 항일전쟁시기 문물과 농경기구, 수백쪽의 사진으로 홍일촌의 발전사를 보여준 ‘촌사교양관’, 항일련군 녀정사의 생애와 가정사를 보여주는 ‘김백문옛집’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홍색문화 전승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홍일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김상화이다. 1900년 2월 연길현(지금의 룡정시) 후동촌의 한 빈고농 가정에서 출생한 김상화는 10살 나던 해에 소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생활난으로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했다.

1924년에 왕청현 하마탕에 이사해간 김상화는 당시의 진보적인 청년들과 함께 반제반봉건 혁명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상각오가 신속히 제고되었다. 그의 영향하에 그의 안해, 어머니, 동생들도 선후로 혁명의 길에 들어섰다. 1930년 5월 김상화는 ‘붉은 5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7월에는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30년 하순, 중공동만특위 조직 부장 왕경(문백도)은 룡반구에서 왕청현 제 1차 당원대회를 소집하고 김훈을 서기로 하는 중공왕청현위를 건립하였다. 그때 현의 당원수는 147명이었는데 김상화는 하마탕구위 서기로 임명되었다.

1931년 1월 21일, 중공왕청현위 제 1임 서기 김훈(1904-1934)이 체포되자 1931년 1월 27일, 중공동만특위는 김상화를 왕청현위 서기로 임명하였다. 현위 서기로 임명된 지 몇

새 만인 2월 1일 저녁 김상화는 적위대의 무장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하마탕 대방산촌(지금의 홍일촌)에 내려와서 북하마탕지구 서기 한영호를 만나 밤 늦도록 무장 탈취와 근거지 건설에 대해 연구토론했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600여명의 ‘토벌대’가 갑작스레 마을을 덮쳤다. 밀정의 보고를 받은 놈들은 한집한집 살살이 뒤졌고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천정에 숨었던 김상화와 한영호는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그가 사발 속에 감추어둔 문건과 소구유 아래에 감추어둔 다섯자루의 권총을 들추어내고 한영호가 바친 12자루의 총을 내놓으라고 으박지르며 혹형을 들이쳤다. 입과 코에 고추물을 부어넣고 손가락에 참뎀고쟁이를 꽂아 밧자레 까무러쳤지만 김상화는 이를 악물고 당의 비밀을 고수하였다.

그날 저녁 김상화는 적들의 더욱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혼미상태에서 당과 조직의 기밀을 누설할 것이 근심되어 한영호와 더불어 자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한영호는 김상화가 넘겨주는 면도칼날로 자기의 목을 그어 자진했고 김상화도 면도칼로 자기의 목을 힘껏 그었다.

이튿날 아침, 적들은 한영호는 이미 사망하고 김상화는 숨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김상화는 손으로 필목을 가져오라고 시늉했다. 그는 종이에 “나와 한영호는 공산당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고한 백성들이니 그들을 풀어주기 바란다. 혁명은 꼭 성공할 것이다!”라고 힘있게 썼다.

1931년 2월 5일, 적들은 그 어떤 혹형과 유혹으로도 움직일 수 없자 김상화를 사방산 아래에 끌고 가서 총살하였다. 그때 김상화의 나이는 31살이었다.

김상화가 희생된 후 잔인하기 짝이 없는 적들은 군중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작두로 김상화와 한영호의 목을 잘라 머리를 마대에 넣고 마을을 한바퀴 돌 다음 마을을 중심거리의 큰 비슬나무에 걸어놓고 표시하였다.

그가 희생된 후 하마탕 일대의 군중들은 자발적으로 창작한 “...다섯이 라면 오호사해 다 함께 노래하네 왕청현위 서기 김상화를, 여섯이라면 6월에 2를 곱해 12월이라네, 열사의 피는 강이 되어 흐르고...”라는(김상화)〈십진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휘 뿌리며 력사를 추모하였다고 한다.

/ 김태국기자

제 4 진 국가급 항일 유적 및 영렬 발표

길림성 3곳+2명 선정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제 4진의 34개 국가급 항일전쟁 기념 시설 및 유적 명부를 발표했으며 퇴역군인사무부는 제 4진의 43명 저명한 항일 영렬 및 영웅단체 명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포한 국가급 항일전쟁 기념 시설과 유적은 주로 항일전쟁 시기 중요한 전역과 전투, 항일전쟁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저명한 영렬 및 국제우호인사, 화교 및 국외 항일전쟁 시설과 유적, 그리고 일제의 중국 침략 만행을 반영하는 시설과 유적을 포함한다.

이중 길림성에서는 반석시 홍석라 자산구에 위치한 홍석라자(红石砬子) 항일근거지 유적과 길림성 백산시 강원구 대석적인 광환로에 위치한 석인혈루산(石人血泪山) 조난광부 기념지, 길림성 백산시 무송현 백화로와 육재로 교차점에 위치한 장백산 로혹하(长白山老黑河) 유적이 국가급 항일전쟁 기념 시설 및 유적 명부에 선정되었다.

중공연길구위 서기였던 조기석(曹基锡, 1904-1932)과 차하르민중항일동맹군 제 4군 1사 사장이었던 정계림(郑桂林, 1889-1933)은 제 4진 저명한 항일영렬 명부에 선정되었다.

/ 김립일보